

## 한 사람을 세우는 교육

- 김바울 (로고스 크리스천 아카데미) 교장 / 2003. 5. 20 -

기독교교육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육은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지요.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다른 한 마리의 양도 더욱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의 긍휼의 마음처럼 우리의 교육도 한 사람을 올바르게 세우고 양육하는 일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참교육은 반드시 사랑과 존중 가운데 자발적인 학습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각기 다른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교육은 획일적이거나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학을 잘못하는 사람이 국어를 잘 할 수 있고 과학을 못하는 사람이 예능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학문적 기준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각기 재능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많은 입학상담과 가르침을 통해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성적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의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자신의 성공적 인생에 대한 구체적 목표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추상적이고 막연한 목표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은 자신의 인생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열정과 비전, 그리고 집중적인 학습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한 목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마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부모와 교사는 옆에서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가도록 돕는 'Mentor' 즉, 조력자인 것입니다. 자녀는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며 격려하는 스승의 지도를 역시 존중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학교에서 우리 교육의 목표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자신의 삶의 목표이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질서와 예의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질서가운데 만드셨습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사상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서와 예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신의 바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교

육의 열매이어야 합니다.

넷째로,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신의 처한 여건과 환경가운데 맡겨진 어떠한 일이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마치는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교육으로 학문지식이 높고 우등할지는 모르지만 사회공동체적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양심을 파괴하는 부정직한 행동들 그리고 책임감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들은 근본적으로 기본교육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도의 학문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단순한 지식축적 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의 교육이 시작되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가르치며 배우는 그러한 학교가 바로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학교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